

## 근대 계몽기 서사의 이국취향을 통해 본 문화의 재배치 과정

— 최찬식의 소설을 중심으로 \*

곽승미 \*\*

<차례>

1. 서론
2. 계몽의 기호로서의 '이국': '내부'의 타자화
3. 문명/야만 구도의 재배치: '내부'의 주체화 기획
  - 3.1. '야만'과 '경성': 세계의 위계화
  - 3.2. '광기'와 '이치': 전통윤리의 재소환
4. 결론

### <국문초록>

이 연구는 최찬식의 소설을 중심으로 근대 계몽기를 살아가는 일상인의 의식과 그 발현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의 실재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최찬식의 소설에서 반복해서 채용하는 이국행과 이국취향은 인식 불가능한 근대상을 상상적으로 재현함으로써 계몽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표상이다. 이는 외부 세계를 중심화하고 조선 내부를 타자화하는 기제가 된다. 내부를 타자화함으로써 필연적으로 귀결되는 자기의식의 혼란이 소설에서는 회생양이자 이방인인 광기의 여학생으로 표상된다. 이러한 자기의식의 혼란을 극복하는 서사적 전략으로 세계를 위계화하기 위한 하향식 이국취향을 주조하고, 전통 윤리를 재소환하여 이치(二妻)를 합리화함으로써 정체성의 분열을 봉합한다.

**주제어** 주체, 타자, 환상, 문화기호, 이국취향, 전통, 이국, 광기, 이치

\* 이 논문은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5-079-AS0107).

\*\* 이화여대 전임강사

## 1. 서론

근대계몽기<sup>1)</sup>는 사회·정치·문화 모든 부분의 지배구조와 의식이 대 전환을 이루는 시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일상인들이 느끼는 문화적 감각과 자기정체성의 변화 폭은 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변화의 감각은 교통수단의 발달로 공간 이동이 수월해졌다는 점과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다른 문화권의 생활방식을 간접적으로나마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견인했다. 공간의 이동과 매체의 분화를 통해 접하게 된 서구적 일상에 대한 상상적 공유와 그로부터 빚어지는 일상적 감각의 균열이 이 시기 서사에서는 이국으로의 여행과 이국적 일상의 묘사로 장면화된다. 특히 최찬식은 소설에서 이국으로의 여행 모티브와 이국적 일상의 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를 두고 최원식은 ‘양장한 구소설’<sup>2)</sup>로 칭하여 반근대성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그의 소설에 “최찬식이 개척한 새로움, 즉 어떤 근대적 실감”<sup>3)</sup>이 실재함을 평가했다.

최찬식은 이인직, 이해조의 계보를 이어 1910년대 후반까지 창작한 신소설 작가이자, 대중성을 담보한 소설가로 인정된다. 대개 신소설은 1910

1) 문학사에서 개화기 혹은 근대계몽기는 1894년 갑오개혁부터 1910년 ‘한일병합’에 이르는 시기를 지칭한다. 그런데 이 연구는 근대계몽기의 끝 시점을 1919년으로 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문학사적으로 볼 때 최초의 근대소설이라 칭하는 『무정』이 창작되는 시기이며, 본격적인 신문학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1920년대 이전 시기라는 점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사적으로는 본격적인 시민운동이 일어난 1919년과 그 이전은 분명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가 대상으로 삼는 시기는 좁은 의미에서 근대계몽기(‘애국계몽기’)로 지칭되는 1905-6년 이후, 즉 신소설이 본격적으로 창작되는 시기를 대상으로 삼는다. 정치적으로 일본에 본격적으로 예속되는 1906년 이후 내부의 근대화 동력이 점차 약해지면서 ‘나’와 ‘타자’의 설정이 더욱 문제시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2) 최원식, 『1910년대 친일문학과 근대성』, 『민족문학사연구』 14, 1999, p.195.

3) 위의 논문, p.179.

년을 넘어선 시점부터 계몽의 의지가 점차로 약화되고 통속화의 길을 걷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시점으로부터 최찬식의 창작 활동은 시작되며, 신소설의 전성기와 소멸의 과정과 최찬식의 창작 활동의 궤적은 거의 일치한다.<sup>4)</sup> 이전 시기 이인직, 이해조는 스스로 계몽의 주체로 의식하였다. 그러나 최찬식에 이르면 계몽의 의지는 점차 약화되고 감각의 영역, 즉 사적인 세계의 묘사에 집중하게 된다.<sup>5)</sup> 이러한 과정은 자기의식의 변화, 외래문화 곧 서구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전통문화에 대한 의식의 변화와 중첩된다는 것이 이 연구의 가설이다. 이에 이 연구는 최찬식의 소설을 중심으로 근대계몽기의 장편 서사인 '신소설'이 이국적인 것들을 반복적으로 채용하는 문화적 맥락을 재구할 것이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각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다.

첫째, 근대성을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태도에 문제를 제기한다. 근대성을 전지구적으로 유포된 단일한 생활양식이라고 정의할 때에는 각각의 공간의 특수성이 간과되거나 비서구지역의 경우는 언제나 어떤 기준점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로 규정되어, 그 지역 내에서도 이러한 견해가 일종의 강박 내지는 콤플렉스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근대성을 '근대'라 불리는 시기의 경험을 보여주는 일상 혹은 문화적 형식으로 보고자 한다.

4) 신소설의 전성기는 1912~1914년으로 볼 수 있다(한기형, 「1910년대 신소설에 미친 출판·유통 환경의 영향」, 『한국 근대소설사의 시각』, 소명출판, 소명출판, 1999, p.224). 그러나 신소설은 1920년대 중반까지도 꾸준히 발간되었다. 최찬식은 1912년 <추월색>을 발표하여 1923년까지 18편을 썼어냈고 1935년에도 박문서관에서 간행했을 만큼 대중성을 획득하고 있었다. 그리고 1919년에 간행한 <능라도> 역시 1930년까지 12편을 써어낼 만큼 다수의 독자를 확보하고 있었다. <추월색>과 같은 해에 발간된 이해조의 <구의산>이 1925년까지 9편을 찍을 것과 비교해 봐도 최찬식 소설의 대중성은 독보적이었다(하동호, 개화기소설의 서지적 정리 및 조사, 『동양학』 7, 1977, pp.31-32).

5) 한기형, 「1910년대 최찬식의 행적과 친일논리」, 『현대소설연구』 14, 2001, p.166.

‘서구화’라는 단일한 준거들에 의해 정의되고 설명되는 근대성이 아니라, 다른 공간에서 다른 방식으로 배치되는 ‘거의 같은, 그러나 아주 같지는 않은’<sup>6)</sup> 경험의 실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근대성은 사회 형태와 관습에 따라서 다르게 경험되는 역사적 시간에 대한 의식이자 특정한 문화 형식이며, 이때 문화의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실제로 근대성이 분화되는 방식이다.<sup>7)</sup>

둘째, 일상적인 공간에서 실제로 근대성이 분화되는 방식을 보기 위하여 이 시기 서사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문화기호의 중요성을 제기한다. 역사적 시기로 구분되는 한 시대는 인식론적 기반과 사회·경제적 토대 위에서 성립되는 한편, 생활의 차원에서는 전통과 다른 새로운 문화의 유입으로부터 비롯된 새로운 생활감각을 통하여 구체화된다. 즉, 새로운 문화의 형성은 새로운 문물의 발생과 발견으로부터 비롯되며, 새로운 문화의 확산과 지배는 그 문물을 지칭하는 언어의 생산과 공유를 통해 이루어진다. 일정한 사물 혹은 관념이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표상 체계를 획득한 이미지가 ‘문화기호’이다. 문화기호는 근대에 이르러 상업적 소비망 속에서 직접적인 경험의 차원을 넘어 일종의 선형적 형태로 일상에서 공유된다. 이 시기 공유되는 문화기호는 근대성이 외부에서 유입되었기에 필연적으로 이국취향을 형성한다.

셋째, 근대성을 의식적으로 주입해야 한다는 강한 현실적 욕망이 굴절되어 나타나는 환상<sup>8)</sup>적 요소들이 유의미한 지표라는 점에 착안한다. 이

6) Homi, Bhabha, 『문화의 위치』, 나병철 역, 문예출판사, 소명, 2002.

7) H. Harootunian, 『역사의 요동-근대성, 문화, 일상생활』, 윤영실·서정은 역, 휴머니스트, 2006, p.143. 근대성은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도시들에 살아가고 표상했던 어떤 경험의 형성을 보여주는 당대적 범주와 근대화의 스펙트럼을 이루는 다양한 사회들과 한 사회 안의 다양한 공간들을 설명하는 역사적 설명 범주가 그것이다(pp.50-51).

를 통해 표현되는 당시 문화의 재편성과 이에서 연유한 주체와 타자의 관계를 읽어낼 수 있다. 아울러 근대적 주체/타자의 구획이 한국 문화 속에서 유효한 것인지를 살필 것이다. 이에 당대의 주요한 코드로서 지적되는 ‘계몽’의 담론이 포착하지 못하는 일상의 분열과 혼란의 지점을 찾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나’와 구별되는 타자의 설정, 그리고 권력이 기획하는 주체와 타자의 구획이 환상성을 통해 드러나는 양상을 규명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근대 계몽기를 살아가는 일상인의 의식과 그 발현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의 실재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 이 시기에 감각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요소를 찾고, 그 서사적 발현 양상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최찬식의 <추월색>(1912), <안의성>(1914), <능라도>(1919)에 나타난 이국적인 것의 양상을 고찰할 것이다. 최찬식의 이 소설들에 주목하는 까닭은 이 소설들이 새로운 문화기호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 스스로 확장시키며, ‘이국’, ‘광기’와 같은 환상의 지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조선적 근대성의 특징적 면을 감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

8) 이 시기 소설에 나타난 환상적 지표는 고전서사의 이인이나 지괴의 모티브와 같이 완전히 비현실적 존재의 창안이라기보다는, “실재의 재현을 넘어서 작가의 상상에 근간한 텍스트 내적 질서에 의해 구축된 이념적 세계”이다(최기숙, 『환상』,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3, p.29). 특히 환상적 처리의 대상이 되는 타자는 “인간심리의 심연에 존재하는 균열의 증거들”(R.Kearney, 『이방인, 신, 괴물』, 이지영 역, 개마고원, 2004, p.12)이며, 환상은 이 세계의 요소들을 전도시키기 위해 “낮설고 친숙하지 않으며, 명백하게 새롭고 절대적으로 다른 어떤 것을 산출하기 위해 그 구성 자질들을 새로운 관계로 재결합”하는 것이다(R. Jackson, 『환상성-전복의 문학』,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역, 문학동네, 2001, p.18).

## 2. 계몽의 기호로서의 ‘이국’: ‘내부’의 타자화

근대교육제도가 도입된 이래 유학은 ‘지적(知的) 장(場)’의 재생산 과정의 일부로서 제도화되어,<sup>9)</sup> 조선에서 근대적 지식은 해외 시찰을 포함한 유학을 통해 유입되었다. 초기 유학은 정부에서 주도하여 대개 관비 유학의 형태였고, 유학의 목적도 실용적인 것을 배우는 것이었다.<sup>10)</sup> 그러나 1895년 유학생 파견에 관한 협약을 일본과 체결한 후, 양반가문 출신의 유학생이 급증하며 전공도 정치학, 법학, 경제학 등으로 바뀌었고,<sup>11)</sup> 1905년부터는 개인 주도의 유학생이 더 많아졌다.<sup>12)</sup> 유학 대상국의 경우는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실제 1919년 이후에는 그 대상국이 일본으로 한정되지만, 1919년 이전까지는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미국이나 유럽(독일, 프랑스)으로 가는 경우도 흔했다.<sup>13)</sup> 일본 유학의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서양으로 직접 유학을 가는 까닭은 다음의 글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 
- 9) 김현경, 「근대교육의 확산과 유학의 제도화」, 『사회와 역사』 70, 2006, p.3.  
 10) 차배근, 『개화기 일본유학생들의 언론출판 활동 연구』 1,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pp.11-15.  
 11) 위의 책, pp.69-70.  
 12) 김현경, 위의 논문, p.5. 이 논문에 따르면 1919년부터 유학생 수가 급증하여, 1935년에 이르면 일본의 고등교육기관에 등록된 한국인 수가 조선의 전문학교 학생 수를 추월하게 된다고 한다.  
 13) 위의 논문, pp.20-23 참고. 이러한 점은 신소설에도 반영되어 있다. 신소설에 나타난 유학 대상국은 서양으로 집중되어 있다. <은세계>, <모란봉>(이인직, 1913), <모란병>(이해조, 1911), <원앙도>(이해조, 1909), <치약산>(이인직, 1908) 등의 인물들은 미국으로, <금강문>(최찬식, 1914)에서는 영국으로, <쌍옥루>(조중곤, 1912)에서는 독일로 유학을 떠나며, <혈의 누>는 일본과 미국, <추월색>은 일본과 영국이 유학 대상국이다. 이렇게 신문 기사를 통해 볼 때 실제 유학 대상국이 주로 일본으로 집중되어 있음에도 소설에서는 일본 유학보다는 미국과 유럽 유학이 더 빈번히 등장한다.

일본학문을 숭비하고 모범하려 하는 것은 그림자의 그림자요 그림의 그림이라 엇디 문명의 실디 진경을 구경하리오 …(중략)… (유학생이: 필자 주)영법덕에는 혼 사람도 잇단 말을 듯지 못하얏고 미쥬에 겨우 십수 인인디 다 하와이 이민으로 건너와 자기가 학비를 벌어서 공부하는고로 완전치 못할 뿐더러 그 곤란한 형상을 참아 눈으로 볼 슈 업고 본국으로 더러하야 자 비유학하는자는 불과 혼 두 사람이라 …(중략)… 일본에 유학인들 엇디 다 필요치 아니하리오만은 보호국의 붓글엄과 속방인의 분함을 닛고 물음을 쏘고 수업하다가 도로혀 숭비하며 앙모하는 사상이 싱겨 전일 지라 학문예로 예가 되야 쇼등화되기를 자칭하든 옛 학자와 꺾치 쇼일본을 자칭할가 두려워하노라 …(중략)… 국니청년학성은 발분강기하야 부급속장하고 구미렬국에 분비하야 날마다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식 건너가 유학하기를 천만공축하노라<sup>14)</sup>

윗글은 유학 대상국 편중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대상국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에 집중적으로 유학한 까닭이 지리적인 이점으로 인한 경제적인 고려와 인종적·언어적 유사함에 있었다는 것은 추론 가능하다. 그러나 과거에 조선보다 미개했던 일본이 열강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까닭이 서양의 문물을 먼저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여겼기에, 조선이 일본을 넘어설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서양과 근사(近似)해 지는 것으로 삼았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일본뿐 아니라 미국 등지의 서양에 유학을 보냄으로써 조선이 자강(自強)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직접 체험이 일부 소수의 지식인들에게만 허여된 것이었다면, 대중들에게 서양에 대한 정보는 신문, 잡지, 서적 등의 인쇄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공되었다. 서양에 대한 정보가 17, 8 세기 중국에서 유입된 서양

14) 아청년가유학구미(我青年可留學歐美), 『공립신보』, 1905. 11. 20.

관련 한역서적, 특히 세계전도류 등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sup>15)</sup>한 이래, 외국지리에 대한 지식은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한 자각의 방안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각종 교과서 형식의 지리서가 대거 출판되었고,<sup>16)</sup> 신문과 잡지에는 세계지리와 역사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지리에 대한 지식을 넘어서 서양에 대한 앎을 추구하는 형태로 나아갔다. 특히 ‘아메리카’, ‘뿌리텐’, ‘쁘랑쓰’, ‘씨시아’에 대한 관심은 지대했다. 이들 나라는 “신홍국민”이 부지런히 “본볼” 나라로 제시되었다. 이들 나라에 대한 역사, 위인 등이 수시로 소개되며, 비유의 체계를 획득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서양은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할 대상으로 의식되었고, 서양적 이미지는 대중적으로 소비되었다.<sup>17)</sup>

서구적인 것을 근대성으로 받아들이는 의식은 계몽을 설득하는 글쓰기의 구성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글의 전형적인 구성방식은 문명과 야만의 대조이다. 즉 이러한 글쓰기는 문명화된 세계의 모습에 찬탄을 보내면서 문명화되지 못한 조선의 상태에 대해 탄식하고, 비문명화의 상태가 수치스럽고 조롱거리라는 식의 서술이 이어지면서, 문명과 비문명

15) 홍선표 외, 『17·18세기 조선의 외국서적 수용과 독서실태』, 혜안, 2006, p.17.

16) 김봉희, 『한국 개화기 서적 문화 연구』, 이대출판부, 1999, pp.208-219 참고.

17) 유학과 함께 이국문화를 체험하는 계기는 여행이었다. 이때 여행은 여가로서의 여행이 아닌 시찰 혹은 학습의 의미를 띤다. 일본은 적극적으로 외지, 즉 조선, 만주, 대만 등의 식민지를 대상으로 한 관광단을 구성하여, 독일·러시아·미국·영국 등지에서 조직된 관광단이 일본에 이어 조선까지 방문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 특히 경성은 새롭게 조성되었다. 조선을 방문한 일본 관광단의 주요 여행지는 경성 내의 궁이나 경주, 평양 등의 전통적인 유적, 그리고 금강산 등의 자연뿐만 아니라, 일본에 의해 건축된 ‘양풍(洋風)’ 건물이었다. 당시 경성을 대표하는 8대 명소로 용산역, 조선총독부, 남대문, 경성부청, 남산공원, 식물원, 경성역, 조선신궁을 꼽고 있다(권혁희,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 민음사, 2005, pp.54-55 참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서구 분위기를 풍기는 거리가 경성 내에 조성되면서 대중들은 서구적인 문화를 조선 안에서도 체험하게 되었다.



사이의 틈을 메우기 위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끝을 맺는다.<sup>18)</sup> 문명과 비문명, 즉 서양과 조선의 대조는 신소설에서 발견되는 이국행(異國行)을 설명하는 데에도 적합하다.

신소설에서 여행의 계기는 환란이다. 새로운 세계에 진입하는 계기가 ‘환란’이라는 것은, 당시 외래문화의 유입이 난리처럼 급작스럽게 맞닥뜨린 낯선 체험이라는 것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혈의 누>(이인직, 1906)에서는 ‘청일전쟁’이 집 떠남의 계기가 된다. 청일전쟁이 발발하여 평양시 내에서 전투가 벌어지자 어머니 최춘애, 아버지 김관일, 딸 옥련은 뿔뿔이 흩어진다.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는 과정에 이국행이 등장한다. 김관일은 천하각국을 구경하고 공부를 해 나라 사업을 할 목적으로 외국으로 유학을 떠난다. 옥련은 일본으로 가 일본인으로 키워지며 학교를 다니다가 미국 ‘화성돈’으로 유학을 가, 조선에서 부인들을 계몽시키려는 꿈을 가진다. 이렇게 이국 여행<sup>19)</sup>을 통해 인물들은 근대적 세계로 진입한다.

18) A. Schmid, 『제국 사이의 한국 1895-1919』, 정여울 역, 휴머니스트, 2007, p.114.

19) 여행의 계기로서의 환란이 <혈의 누>에서 청일전쟁이고, <은세계>(이인직, 1908)에서는 지방 관리의 부패에 저항하여 일어난 민요(民擾)이다. 개화당의 김옥균에게 감화를 받은 최병도가 감영에 갇혔다가 강릉 집으로 돌아가던 중 죽고, 이 사건의 충격으로 부인은 정신이상자가 된다. 최병도의 친구인 김정수가 최병도의 재산을 관리하며 그 자녀인 옥순, 옥남 남매를 미국 ‘화성돈’으로 유학 보낸다. 옥순과 옥남은 갑자기 닥친 집안의 환란으로 인해 집을 떠나게 된다는 점에서 <혈의 누>의 옥련과 같다. 위의 두 소설의 경우 집을 떠나는 계기는 가정 밖의 사회적 계기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소설에서 집을 떠나는 계기는 가족 안에서 구시대 습속이 벗어내는 갈등으로 설정된다. 이러한 갈등 상황 속에서 인물들은 자발적으로 혹은 타의에 의해서 집을 나오게 된다. <빈상설>(이해조, 1907)은 이씨 부인은 첩의 음모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오고, 서경길은 처첩이 없는 집에서 영문도 모른 채 집을 나온다. <홍도화>(이해조, 1908)에서 태희는 간음했다는 누명을 쓰고 자살을 하려다가 옷을 싸두었던 ‘태국신문’의 재가(再嫁)에 관한 논설을 보고 집을 나온다. <추월색>(최찬식, 1912)에서 정임은 원치 않는 혼인을 피하려고 가출하고 영창은 집안의 환란을 피해 떠나며, <안의 성>(최찬식, 1915)에서 상현은 고부간의 갈등으로 벗어난 집안의 어려움을 피해 나오고, <목단화>(김교제, 1911)의 정숙은 계모의 계략으로 집을 떠난다.

다른 세계로의 이동은 그 자체로 현실의 차원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또 하나의 차원 혹은 질서라는 측면에서 환상적 경험이 된다. 이때 묘사되는 이국 풍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것 혹은 천상계에 대한 묘사와 유사하다. 초자연적인 것, 천상계에 대한 묘사가 과거로부터 내려온 입소문의 축적에 의해 가능한 것이었다면, 이국의 풍경 역시 보다 제도화되고 객관화된 매체인 신문이나 서적을 통했다고 하더라도 풍문에 의존한 것이다. 풍문에 의한 기억과 상상의 결합으로 이국의 환상이 창조되는 것이다. 외국으로의 유학이나 여행은 일종의 ‘마법의 장치’로서 이국적 흥취를 자아내고 동시에 ‘문명’을 감각적으로 표상하는 비밀장치<sup>20)</sup>이다. 환상이 실제의 재현을 넘어서 작가의 상상에서 근간한 텍스트이고 내적 질서에 의해 구축된 이념적 세계<sup>21)</sup>라고 할 때, 이 시기 소설에서 이국은 근대성을 가시화하여 보여주는 표상인 것이다.

다음은 <추월색>에서 묘사하고 있는 서양인과 서양, 그리고 이국적인 일상이다.

(가) 몇칠이느 가고 어디까지나 왔던지 혼 곳에 이르러서는 발도 부룻고 다리도 압홀 뿐 아니라 여러 늘 굴머서 괴운이 시진호야 정신 일코 사장에 너머졌스니 그 동탕혼 얼골이야 어디 갈 것 아니지만은, 그 너머진 모양이 혼 털업는 직정이 송장이라 강변 까막귀는 이리로 느르며 「씩씩」 저리로 느르며 「씩씩」 하고 씨씨는 와서 여디도 「뿔뿔」 맞혀 보고 저디도 「뿔뿔」 맞혀 보나 이것저것 다 모르고 누엇더니 누가 허리를 쭉쭉 씨르고 또 쭉쭉 씨르는 섭에 간신히 눈을 드러 보니 어리외리하게 보이는 중에 키는 장승 갖고 옷은 시커머코 코는 주먹덩이 만호고 눈은 여산 칠십 리는 드러간 듯호야 독잡이 중에도 상독잡이 갖흔 스름이 엽혀 서서 무슨 말을 하난디, 귀도 떡떡호지만

20) K. Hume, 『환상과 미메시스』, 한창엽 역, 도서출판 푸른나무, 2000, p.150.

21) 최기숙, 앞의 책, p.29.

은 말인지 어훈도 알 수 업고 말할 기운도 업거니와 대답할 줄도 모르고 눈이 멀거니 쳐다볼 뿐이라. 그 스름이 달려드러 이르켜 안쳐 낫코 빨병을 내여 물을 먹이더니 손목을 끌고 인가를 차져가니 그곳은 신의주 나루터이오 그 스름은 영국 문학 박사 스미트라 호는 스름인디 자선가로 영국에 유명한 사람이라 그 스름이 동양을 유람코자 호야 일본 다녀 조선으로 와서<sup>22)</sup>

(나) 마차를 타고 막 ” 호 광야로도 가고 기차를 타고 화려장터호 시가도 지느가고 화륜선을 타고 망 ” 호 바다로도 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다가 어느 곳에서 기차를 느리미 쌓에는 철로가 빈틈업시 노치고 호늘에는 전선이 거미줄갓치 열렸스며 넓고 넓은 길에 마차, 자동차, 자전거는 여기셔도 쓰르를 저기셔도 쓸쓸호고 십여 층 벽돌집은 좌우에 정영호며 각식 공장의 연기 굴뚝은 밀집 드러서듯 총 ” 호야 그 굉장호 품물이 영창의 눈을 놀리니 그곳은 영국 서울 「론돈」이오<sup>23)</sup>

(다) 녀학생은 나히 열팔구세집 된 듯호며 신선호 조화로 머리를 장식호고 자지벋 하가마를 단정호게 입엇는디, …(중략)… 엇던 하이칼나적 소년이 …(중략)… 파나마 모자를 폭 숙여쓰고 금테 안경은 코허리에 걸고 양복압겹 썩 갈라붓친 속으로 축 느리진 시계줄은 월광에 티여 반작 ” 호며 바른 손에는 반님 탄 여송연을 손가락에 가마취고 왼손으로 단장을 드러 향호는 길을 지점호고<sup>24)</sup>

(개)는 영창이 영국인 스미트의 도움을 받는 장면이다. 스미트는 조선사회에서 이방인이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낯선 외모의 이방인이 조선 내부인인 영창을 구원한다. 조선 내부는 아직 야만의 세계로 경멸의 대상, 혹은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외국은 인물들을 안정감 있게 구원하는 것이다.

22) 최찬식, 『추월색』, 회동서관, 1912, pp.58-59.

23) 위의 책, pp.60-61.

24) 위의 책, pp.3-5.

전통적 가족제도에 묶여 아직 계몽되지 못한 조선 사회 전체는 부정적으로 의식되어 배제되는 공간이고, 근대화된 외국, 즉 일본 혹은 미국 등지의 서양은 동경의 대상이다. 따라서 집 밖으로 나와 다른 세계로 가지 못한 자는 변화하지 못하고, 집을 떠나 외부로 성공적으로 탈출한 자들만이 긍정적으로 변화한다. 이국의 경험은 그 경험 내용의 적절성, 현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근대적 주체화의 필수 과정으로 처리됨으로써 지극히 현실적인 조선 내부는 타자화된다.

(내)에서 런던은 낯설고도 새로운, 그래서 위압감이 느껴지는 곳이다. 서사에서 필수적이지 않은 런던행과 런던에 대한 묘사는 결국 계몽의 내용이 되는 근대적인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에 대한 쉽고도 통속적인 답이 된다. 이국의 묘사를 통해 “아미”한 조선을 떠나 “이십세기 문명시디”, “고명한 풍조가 날로 증진하는 이 시디”의 구체적인 형상을 보여주려 하는 것이다. 이때 제시되는 것이 기차로 대표되는 근대적 문물과 번잡한 도시의 풍경이고, 이것에 대한 찬탄을 통해 이국이 바로 조선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보여준다. 이로써 유학 혹은 외국 여행은 새로운 문화, 혹은 계몽을 표상하는 기호가 된다. ‘기호’가 표상과 실재의 결합이지만, 감지할 수 있는 것은 그 본질보다는 감각적 표상이다. 따라서 기호화된다는 것은 사물이나 현상 혹은 관념의 실재와 간극이 전제될 수밖에 없다. 결국 소설에 그려진 외국을 통해 독자가 수용하게 되는 것은 이국적 분위기이다.

(대)는 <추월색>의 서두로, 새로운 문물들을 나열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우선 시공 자체가 이국적이다. 동경 우에노 공원의 일요일의 한 풍경을 보여준다. 음력을 써왔던 조선에서 1896년부터 공식적으로 사용한 양력으로 측정되는 새로운 시간, 전통적인 뜰이나 정원과 달리 대중들을 위해 인공적으로 대규모로 조성된 공원이라는 새로운 공간은 세

련됨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낯선 문화를 친숙하게 자신들의 것으로 하고 있는 인물들의 복색 또한 새롭다. 이렇게 이국적 문물과 습속을 적극적으로 취재함으로써 “근대적 실감”을 부여한다. ‘이국적인 것’ 또한 계몽의 기호가 되는 것이다. 즉 계몽의 주체로 형상화되는 인물들의 이국적인 복색과 취향, 생활을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이국적인 생활형식이 문명인의 필수적인 자질로 부각된다.

문화의 범주를 관념, 규범(습속), 물질, 언어로 나눌 수 있다면, 신소설에서는 습속으로서의 규범과 제도화된 근대의 일상을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로서의 물질을 압도적으로 많이 수용하고 있다. 즉 근대적인 관념과 규범이 그것을 표상하는 물질계나 언어 자체로 제시되는 것이다. ‘유학’ ‘학교’ ‘신문’, ‘과학’ ‘세계일주’ ‘여학생’ ‘법학자’ ‘하카마’ ‘하이칼라’ ‘가피차’ ‘삼관주’ ‘밀크’ ‘박물관’ ‘동물원’ 등은 서사적 필연성에 의해 채택된 소재라기보다는 그 언어 자체의 이국적임과 새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채택된 문화기호이다. 이러한 복색, 음식, 취향을 생활화한 자가 곧 계몽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이는 계몽이 이념적 정신적 담론으로서 수용되었다기보다는 생활형식으로 수용되었음을 말해 준다. 자아의 각성이라는 인식론적 기반이 제거된 채 그 결과물인 생활, 물질, 언어가 오히려 실재로 의식되고 있는 것이다.

소설 속에 그려지는 이국적 일상은 독자들에게 근대에 대한 낭만적인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새로운 땅에 대한 호기심은 실제 내용과 전혀 관계 없이 붙여진 <비행선>, <요지경>, <유성기>, <현미경> 같은 신소설의 표제들처럼 독자의 흥미를 직접적이고도 일차적으로 유발시키고자 하는 목적에 의한 것이다. 이것은 인식 불가능한 현실의 상상적 재현이라는 환상의 문법과 일치한다. 인식 불가능한 근대상을 상상적으로 재현한 것이 이국적 공간인 것이다. 이때 외부는 인물을 압도함으로써 텍스트 맥락 속

에서 인물을 자신의 내부로 포섭하려 한다. 이러한 텍스트 내적 반응은 현실맥락과도 이어져, 서구적·근대적인 낯선 외부의 것이 결국 ‘중심’이며, 조선의 현실 속에 살아가는 자신들이 ‘지구세계’의 관점에서 낯설고 이질적인 존재임을 발견하게 한다. 이러한 내부와 외부의 전도는 결국 내부인들을 타자화하여, 내부인들은 포섭되어야 하는 존재들이며 포섭의 논리에 동참하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타자로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담론화된다.

### 3. 문명/야만 구도의 재배치: ‘내부’의 주체화 기획

#### 3.1. ‘야만’과 ‘경성’: 세계의 위계화

신소설의 작가와 인물은 문명과 야만의 대립에서 자신을 문명의 위치에 놓고 조선 사회 내부를 타자화했다. 그러나 실제 세계에서는 서양/동양, 일본/조선의 위계에서 열등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때 서구적인 것이 곧 근대적인 것이라는 등식 속에서만 근대성을 의식한다면 서양에 대한 태도는 찬탄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고, 결국 맞닥뜨리게 되는 것은 주변부일 수밖에 없는 조선의 현실이자, 자기 자신이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새로움과 과거부터 있어 왔던 원래의 것을 자신의 정체성에 맞추어 배치하는 일이다.

이러한 점을 보여주는 극적인 사례를 <능라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능라도>는 우연히 만난 ‘학생’ 남녀의 혼사장애담이다. <능라도>는 갈등과 그 해결을 문명과 야만이라는 공간의 대조를 통해 보여준다. 경성·동경과 홍춘식이 풍랑을 만나 표류한 남양군도가 그것이다. 이 두 공간은 다음과 같이 대조적으로 묘사된다.

(가)

스름도 갖고 원숭이도 갖흔 것들 이 큰 놈 자근 놈 흔쎄가 오는 디 발가버  
슨 몸동이가 얼골까지 솟등걸갓치 검고 노랑 더가리가 나풀나풀 헨난 속으  
로 헨안 눈썹이 반짝 〃 헨는 용모는 귀신인지 짐승인지 보기에 흥측도 헨고  
무섭기도 헨다<sup>25)</sup>

암컷 솟컷 큰 것 자근 것 모다 발가벗고 싱식기를 괴탄업시 드러니여 노  
흔 것이라 그것들이 그 모양으로 웃고 짓거리다가 그중 큰 놈이 달려드러  
춘식의 손을 덤석 쥐더니 공갈헨는 모양갓치 무슨 소리를 썩-썩- 지르며  
길도 업는 곳으로 혼업시 끌고간다<sup>26)</sup>

『이곳은 남양군도 중에 「마누쓰」라 헨는 곳인디 이곳에 거주헨는 토인은  
모다 야만이라 그 야만들은 김성이나 별로 다를 것 업서 스름 잡아먹기를  
도야지 잡아먹듯 헨고로...(중략)...『그러면 시캅안 몸동이를 발가벗고 단  
이는 그것이 식인종이올시다 그러 나눈 그것들이 아귀인 줄 알았더니 그것  
들도 스름이오닛가』<sup>27)</sup>

(나)

서울시가의 번창흐은 실로 평양 스름의 안목에는 가위 별유탄디라 홀 만  
흔 터이라 웅장흔 건물과 화려흔 점두는 도영의 눈을 놀니여 심중에 가득흔  
근심까지 이져바렸더라...(중략)...참 서울이 도흔 곳이다 부인 스희까지 저  
와갓치 발달이 되엿구나 조선의 여자는 아모쪽에 쓸디업는 물건이라 나는  
일반의 여자계를 위헨야 근심헨던 터이더니 문명풍도가 반도강산에 불어옴  
으로부터 여자 스희가 저와갓치 발전되는 것은 실로 니 마음을 위로홀 만흔  
일인즉...(중략)... 유리창문을 여니 히스시가미를 하이카라적으로 보기죠크

25) 최찬식, 『능라도』, 유일서관, 1919, p.173.

26) 위의 책, p.174.

27) 위의 책, p.176.

트러언진 일기 여자가 반갑게 환영을 하며<sup>28)</sup>

일료일이라 정년이와 화주는 손목을 마조 잡고 품천희변으로 산보를 갖다<sup>29)</sup>

하이카라 남녀가 다정하게 슈작을 하고 박물관 압호로 내려온다...(중략)…남자는 하이카라 양복에 금안경을 쓰고 그 녀자는 히사시카미에 하까마를 입었더라<sup>30)</sup>

(가)는 남양군도, (나)는 경성과 동경에 대한 언급이다. (가)의 경우 낯섬을 표나게 드러내고 있는데, 그 낯선 감정은 부정적인 것이다.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이 과연 사람일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것은 오로지 ‘야만’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곳을 ‘야만’이라고 인지하는 까닭은 그들이 의복을 갖추지 않았고 피부색이 검기 때문이다. 야만에 대한 감정은 흥측하고 무서운 것이고, 담배 포장지에서 보던 바로 그것으로 대상화되어 있다. 서사에서 필수적이지 않은 이 에피소드는 타자로서의 자기규정이 가져오는 분열을 봉합하는 수단이 된다.

이 소설은 “문명풍도” “이십세기 문명시디”라는 관용어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조선이 문명한 사회임을 드러내기 위해 선택한 것이 야만에 대한 묘사이다. 이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국취향이 상향식뿐 아니라 하향식으로도 형성되어 있었음이다. 하향식 이국취향이 발견되는 까닭은 문명과 조선의 관계에 대해 새롭게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근대화된 국가들에 집중할 때 조선은 언제나 열등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조선이 문명화된 나라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즉 자신이 문명인이라는

---

28) 위의 책, p.122.

29) 위의 책, p.150.

30) 위의 책, p.187.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조선보다 열등한 것으로 비추어지는 야만적 세계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 시기에는 이국적인 것이 주로 서구에 대한 정보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여송연짜지에서 구경하던”과 같은 구절을 볼 때 문명화된 서구가 아닌 곳에 대한 호기심과 취향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청춘』은 창간호에 「인종」이라는 글을 수록하는데, 이 글은 세계의 인종들을 분류하여 설명하는 설명문으로, ‘야만인의 풍속’이라는 제호로 콩고인, 셀론도서의 베다인 등의 사진을 함께 수록한다. 그리고 2호에는 「세계 일등의 야만인」이라는 글을 실어 호주의 원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그런데 이 글은 이 잡지에 연재되는 「동물기담(動物奇談)」과 같은 성격의 글이다. 동물들의 신기한 이야기를 소개하듯이 세계에는 우리와는 다른 인종들이 살고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sup>31)</sup> 그리고 이후에도 『청춘』은 권두의 화보에 유럽 등의 서양의 도시 풍경과 ‘야만인’의 화보를 함께 싣는다. 이렇게 이국에 대한 정보가 소위 ‘야만’ 지역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조선을 문명화된 국가와 같은 위치에 놓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비롯된다. 이제 서양이 동양을 구경하고 대상화하듯 우리도 우리보다 열등한 지역을 구경하고 대상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야만과 대조적인 공간으로 설정된 경성과 동경의 모습을 그린 (나)의 경우에 잘 드러난다. 이 공간은 ‘별유천지’ ‘웅장한’, ‘화려한’ ‘보

31) “사람으로 생겨나기는 다 마찬가지로만은 현금 지구상 인류간에는 온갖 점에 비상한 층등이 잇습을 보겠도다 구주각국의 인류가 괴섯만췌 더 할 수 업는 인지와 천혜의 결과로 문명 이라는 맛 조흔 술에 취흥이 도도하야 좁은 세계를 넓게 험쓸고 단이는 가 하면 아불 리가 아미리가내지며 남양군도의 토인중에는 우리가 수백년 쯤더 드리켜 수천년 이전에 경험이 잇는 극히 유치한 극히 참혹한 금수나 얼마 틀리지 안이한 상태가 지금까지도 온전히 남아 잇스니” 세계일등의 야만인, 『청춘』 2호, 1914. 11, p.78.

기종계’ 등의 수식어를 드러나듯 긍정적이다. 문명화된 곳에서는 어떠한 공포도 느끼지 않는다. 이곳에서는 이국적인 복식과 머리 모양을 갖추고 산책을 하거나 박물관, 동물원 등을 구경하는 소위 문화적 행위가 가능하다. 이때 경성과 동경의 등가적 평가의 시선이 주목된다. 경성은 <혈의 누>의 동경, <추월색>의 런던의 묘사에 상응할 만큼 발전되어 있는 곳으로 그려진다. 이전 서사에서 서사적 갈등의 주된 축이 조선 내부 대 조선 외부의 대립이었다면 이 소설은 경성을 제외한 조선 대 경성과 동경의 대립이다. 구태에 사로잡힌, 악(惡)한 상황에서 인물이 탈출해 나온 곳이 경성과 동경인 것이다. 서모의 음모로 인해 살인 누명을 쓰고 정린과 춘식은 조선을 탈출해 동경으로 간다. 그리고 겁탈의 위협을 피해 도영은 경성으로 탈출한다. 이때 경성은 동경과 마찬가지로 문명화된 도시로, 도영에게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게 해 주는 공간이고, 곤란한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구원자가 있고, 돈을 벌어 정린을 찾으러 동경으로 갈 수 있게 해 주는 긍정적 공간이다. 여기에서 문명과 야만의 재배치 작업이 이루어진다. 주변부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식민지 조선인의 정체성이 문명을 위계화하는 작업을 함으로써 경성을 야만에서 벗어난 공간으로 설정하여 주체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 3.2. ‘광기’와 ‘이처(二妻)’: 전통윤리의 재소환

경성과 동경은 새로운 인간형을 창조하고 조선 문화를 적극적으로 배치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능라도>에는 새로운 생활양식과 새로운 인물들을 제시되어 있다. 당시 소설에서 보기 드문 적극적인 여성들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도영은 신학문을 습득하고, 자연발생적인 “연인” 감정을 정린에게 품고, 경성에서 간호부를 하며 번 돈을 은행에 저축하며, 험난한 역정 속에서도 조선의 여자계를 근심한다. 그리고 춘식과 정린의 행방을

찾아 직접 동경으로의 여행을 감행한다. 그리고 도영의 구원자인 김운경은 경성에서 “부인 다과점”을 운영하는 근대적인 직업 여성이다. 정린의 구원자인 기생 화자 역시 정열적인 여성으로 정린과 결합하기 위하여 정린의 모든 생활을 책임지는 적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세 여성은 모두 직업을 가지고 남성을 구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남성의 선택만을 기다리는 수동적 여성으로 회귀하고 만다. 화자는 기생을 하면서도 누군가의 부인이 되고자 하는 소망만 품고 있다가 자살하려 하는 정린을 구해 그를 적극적으로 후원함으로써 정린의 부인이 된다. 김운경은 윤리적인 시뻐거리 없이 다과점을 운영하면서도 남의 부인이 되지 못할까 걱정하다가 도영의 오빠라는 이유만으로 춘식과 결혼한다. 그리고 도영은 결혼을 하지는 말이 오갔다는 이유로 화자와 함께 정린과 신혼예식을 치러 “제2의 부인”이 된다.<sup>32)</sup>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도영과 화자가 전근대적인 ‘이처(二妻)’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모순적 행위는 ‘절개’라는 전통적 관념에 의해 설득력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공부를 하고 직업을 가지고 남성과 자발적으로 “연인”을 하는 근대적인 여성이 가장 봉건적인 제도를 수용하고, 더 나아가 그것을 열망하는 것으로 그려지는 것은 ‘열개화꾼’에 대한 일반적인 반감에 기인한다. 열개화꾼이란 복장만 양복 일습을 갖추어 입었을 뿐 어떠한 사상도 갖지 못한 자들이다. 소설 속에서 긍정적인 인물은 전통적 규범을 잘 따르면서도 동시에 문명개화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래서 유학을 한 자 혹은 신교육을 받은 자는 전통적 규범을 더 잘 따라야

32) 소영현은 이러한 여성 인물의 모순성을 국민을 형성하는 기획에서 여성들이 새롭게 호명되었지만, 그것은 식민지 남성을 근대적 주체로 구축하는 과정에서 수행된 잉여적 결과물이었기에, 가정을 만드는 데 열정을 쏟고 결과적으로 스스로에게서 소외된 채 ‘아내’의 위치를 할당받게 된다고 해석한다. 소영현, 「정열의 근대적 재배치」, 『현대소설연구』 24, 2004.

한다는 의식이 신소설 곳곳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희외에 유학도 호고 신사상도 있다는 이가 이런 금수의 횡실을 횡코자 호면 엇지 호자는 말습 이오”라고 말하는 <추월색>의 정임의 말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해된다. 긍정적 인물은 서양의 외양과 조선의 내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자유연애’ 역시 자아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나온 것임은 간과된 채 새로운 문화를 표상하는 일종의 기호로서 향유되는 것이다. 일부 일처제를 강화하는 이념적 수단이었던 ‘낭만적 사랑’이 기존의 전통적 가족 제도 안으로 포섭되고 있는 것이다.<sup>33)</sup> 이러한 괴리와 분열이 필연적인 까닭은 당시 대중적 감수성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과부의 개가가 정부 차원에서 공식화되고, 규중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이 새로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 설립되고, 세습적인 신분제가 표면적으로는 부정되고, 정혼이 아닌 개인 간의 연애감정으로 자유롭게 결혼을 하는 등의 새로운 제도와 사회·문화 현상들은, 아직 일상에 전폭적으로 스며들지는 못했다. 당시 평균적인 사람들은 기존의 살던 방식과는 다른 낯선 세계를 거부하려 했다. 새로운 세계는 자신이 속해 있던 기존의 세계를 압도하는 여러 요소들이

33) ‘이치’로 표상되는 전통의 재소환 작업은 신분질서에 대한 이중적 의식과도 중첩된다. 신분을 뛰어넘는 결혼을 성사시킴으로써 신분질서에 대해 저항하는 듯하지만 내부에서는 신분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기도 하다. <안의 성>에서 정애의 집안은 지금은 생선 장수를 하는 비천한 신분이지만, 원래는 양반 가문이었음이 계속 주장되고, 교육에 대한 욕망 역시 신분 회복 혹은 신분 상승에 대한 욕망과 등가이다. “분리반” 혼 집 지식으로 오날” 이 모양이 된 것은 혼 갖 지산이 업서 이러흔 것이라 나는 지산만 모아 가지면 다시 우리 조부모의 지위를 회복헿기 쉽거니와 저 정이로 말하면 신분이 여자이라 .....너는 남즈와 달나 시집을 혼 번 잘못 갈 것 갓흐면 그 평성에 가련흔 팔즈를 다시 변통할 슈 업는 것이라 그럼으로 저 정이는 아모쵸록 공부나 식혀서 만리 갓흔 전경에 희망이 잇도록 흐리라”(최찬식, 『안의 성』, 박문서관, 1914, pp.14-15) 시대가 달라졌지만, 결국 지향하는 비는 신분의 상승 혹은 유지이다. 그 방법이 돈, 교육 등 신시대의 것일 뿐이다.

있고, 실제로 조선 사회는 외부의 힘에 굴복해가고 있는 시기이기도 했다. 친숙한 것의 경멸과 이질적인 것의 공포가 상호작용<sup>34)</sup>을 하는 것이다. 이 시기 소설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서구적 문화기호들은 이러한 양가감정 중 '동경'의 측면을 극대화시킨 소재이고, 전통적 가치관의 옹립은 강하고 낮은 세계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는 기재이다.

이러한 기재는 '광기'로 표상되기도 한다. 최찬식은 소설에서 새 시대의 가치를 감지한 남성 인물을 내세워 웅변조로 신사상을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서사에서 부정적 대상은 신시대의 가치건 구시대의 가치건 어떤 판단 기준 아래에서도 부정적일 만한 것들로 제시된다. 이를테면 재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려는 서모와 이복동생(<능라도>), 외모·학벌·재력이 좋은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는 품행이 단정치 못한 여성(<안의 성>), 성적 욕망을 위하여 정숙한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추월색>)은 어떤 가치 기준에서 보더라도 부정적인 인물이다. 따라서 서사의 이면에서 배제되는, 혹은 은폐되거나 결국 포섭되어야 할 대상으로 그려지는 것이 무엇인지 읽어낼 필요가 있다.

이 시기 소설에서 광기는 반복해서 서사화되는 자질이다. 광기는 과거부터 있었다. 이를테면 근대 이전의 소설에는 이인(異人)이 등장하고 지괴(志怪)의 모티프가 다루어지지만, 이들 계기가 정신병 같은 심리적 증상으로 제시된 적은 없다. 현실로부터의 일탈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근대 이후부터이며, 이때부터 정신병이라는 새로운 병명이 부여된다. 정신병은 새로운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진단인 것이다.<sup>35)</sup> 광기의 표지가 달린 인물들은 실제로 미치기도 하고, 포악한 성품과 폭력적 행동이 극에 달해 비정상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들은 새로움을 지닌 인물들에 의해 교

34) 나병철, 『탈식민주의와 근대문학』, 문예출판사, 2004, p.74.

35) 권보드래, 신소설의 여성성과 광기의 수사학, 『한국문학연구』 4호, 2003, p.293.

화되기도 하고 징벌을 받기도 함으로써 현실에서 배제된다.

그런데 최찬식 소설에서 광기는 보다 중층적인 의미를 띤다. <안의 성>에서 ‘여학생’ 정애와 ‘청년법학가’ 김상현은 등하교길에 만나 서로 좋은 감정을 품고 있다가, 상현이 정애의 비천한 출신 성분을 가족들에게 감추고 결혼한다. 그런데 상현을 탐했던 품행이 문란한 봉자와 그의 친구이자 상현의 동생인 영자의 음모로 정애는 부정한 여성으로 낙인찍혀 시집에서 쫓겨난다. 상현은 어머니의 말을 따라야 한다는 ‘효’라는 관념을 앞세워 정애를 구원하지 못한 채 세계일주를 떠나고, 그것을 알게 된 정애는 “정신병(신경병)”을 앓고 전국을 떠돌며 상현의 귀환과 시어머니의 인정을 기원한다. 그러던 중 상현이 돌아와 어머니를 찾아 헤매다가 우연히 정애를 만나게 되고, 시어머니가 오해를 풀고 상현의 인정이 있게 되자 정애는 제 정신을 찾게 된다. <능라도>의 도영 역시 정혼한 남정린과 헤어졌다가 우여곡절 끝에 만났지만, 부정한 여인이라는 남정린의 오해로 정신병을 얻고 남정린이 그 오해를 풀고서야 광기에서 벗어난다.

정애와 도영, 그리고 봉자와 영자는 모두 ‘여학생’이다. 여학생이 갖는 문화적 함의는 다음과 같은 여학생에 대한 상반된 묘사를 통해 추적해 볼 수 있다. 최찬식이 보는 여학생은 다음과 같은 두 부류이다.

(가)

공부에는 뜻이 별로 업스나 남들 학교에 다니는 것이 부러워 못춤니 조-  
 슬녀학교에 통학을 하니 학생의 신분은 조금도 짓하지 안코 저 간에 불미흔  
 행동이 잇서 얼굴이 반 » 혼 소년만 보면 마음에 익모흔는 사상을 두는 터인  
 고로<sup>36)</sup>

36) 최찬식(1914), 앞의 책, p.9.

근일에 소위 녀학생이란 것들은 경작 학문은 아모 것도 업고 지레 시여서 남녀동등이니 턴부인권이니 하는 말을 주장하야 말팔양이가 되지 아니 하면 무뢰 소년과 연극장 출입이나 하는 것을 능스로 아는 것들뿐<sup>37)</sup>

(나)

미묘한 용모와 정숙한 티도가 흡흡한 추슈부용이라 어디로 보던지 가히 신스의 부인이라<sup>38)</sup>

어진 안희와 착한 어머니가 되도록 하고자 하여 위선 학교에 입학을 시켰더니<sup>39)</sup>

(개)는 소위 “넘우 하이칼나”라서 부정적인 여학생의 이미지이다.<sup>40)</sup> 상현이 정애에게 품는 감정은 순수한 열정으로 제시되지만, 여학생이 이성에게 갖는 감정은 불미(不美)한 것으로 평가된다. 서술자와 남성 인물의 목소리를 통하여 여자계의 모범으로 여자계의 발전을 위해 여성 교육의 필요성과 남녀동등을 강변하고 천부인권설을 근거로 신분 제도의 와해를 주장하지만, 실제 여성의 권리 주장은 그 자체로 비행(非行)으로 간주된다. 반면 (나)는 이상화된 여학생의 이미지이다. 이때 여학생은 굳이 ‘학생’이라는 정체성이 필요하지 않은 전통적인 여성상이다. 그런데 신세대 여성의 가치관과 전통적인 남성가부장제의 순종은 논리의 모순을 일으킨다. 자아의 각성이라는 근대성의 인식론적 특질은 도구적 여성과 합

37) 위의 책, p.13.

38) 위의 책, p.1.

39) 최찬식(1919), 앞의 책, p.56.

40) ‘하이칼라’는 “서양풍을 뽐내기도 하고, 유행을 좇기도 하며, 새롭게 보이려고 애쓰기도 하는 것”, 서양물 먹은 뽀새를 물씬 풍기는 것으로, 일본에서도 조롱의 의미로 사용되는 당시 유행어였다. 湯本豪一, 『일본 근대의 풍경』, 연구공간 수유+너머 ‘동아시아 근대 세미나팀’ 역, 그린비, 2004, p.228.

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시기 ‘여학생’ 이후 시기의 ‘신여성’에게는 상반된 가치가 투영되고, 이에 따라 상반된 평가가 내려진다.

긍정적으로 형상화되는 이상적 여성인 정애, 도영과 같은 여학생이 분열될 수밖에 없는 까닭은 한 인물에게 이렇게 이중적인 혹은 상반된 가치가 투영되었기 때문이다. 가족구속적인 전통적 가족제도에 순응하면서 동시에 근대적 인물로서의 각성을 요구받는다 것은 모순적 상황이다. 자유연애, 교육 등의 담론이 포섭한 ‘여학생’은 사실 당대에 이질적인 존재이다. 이렇게 ‘여학생’은 이방인이므로 필연적으로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 희생양은 외지인을 붙잡아 사회에 만연한 악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결국 그 사회에서 격리되거나 제거된다. 그리하여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정체성의 기준을 제공하여 누가 우리에게 속하고 누가 배제되는가를 결정한다.<sup>41)</sup> 여학생이라는 이질적 존재에 대한 서사적 처리는 광녀와 악녀의 창안이다. 여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몰각하게 만드는 전략이 광기라면, 여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철저하게 악마화하는 장치는 악녀이다. ‘여학생’은 이상적으로 숭고한 이미지도 지니지만, 전통적인 질서에 포획될 수 없는 이질적인 존재이기에 악마적인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정애와 봉자는 두 얼굴을 한 하나의 몸인 셈이다.

이 분열이 해소되는 계기는 결국 남성의 인정이다. 주체화 기획에 포섭되지 못한 구여성과 주체화 기획에 의해 의도적으로 호명되었으나 개인성을 부여받지 못한 여학생은 자신의 정체성을 남성의 조건에 따라 변화시킨다. 교육 받은 여성이라 해도 남성과 시가의 인정이 있지 않는 한 그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남성의 인정이 가능한 이유는 이들이 부정하지 않은 여성이라는 점,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덕행과 학문”을 갖추고 “인물이 일식”이며 “내 마음에 가함”한데다가 지조를 지

41) R. Kearny, 앞의 책, p.49.



닌 여성이기 때문이다. 이방인으로 배제된 악마화된 여성은 그 도덕적 흠결로 인정받을 수 없으나, 회개 과정을 거쳐 “제2의 부인”의 지위를 얻어 포섭된다. 이렇게 새로운 사상을 습득하면서도 동시에 전통적인 관념 속에서 살아야 하는 조선의 현실이 광기를 통해 표상되고 있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없는 것, 불확실하거나 미신과 광기의 투영물로 간주되는, 감추어진 타자성의 영역은 문학에서 환상적 존재로 명명된다.<sup>42)</sup> 광기는 인식론적 불확실성<sup>43)</sup> 상태, 그리고 감추어진 타자성의 은유가 된다. 최찬식의 소설에서 광기는 조선의 감추어진 타자성, 즉 분열할 수밖에 없는 조선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인 가치관과 새로운 문화가 공존하는 신소설의 모순성에 대해 전근대와 근대의 합성으로 봄으로써 가속화된 근대의 반성기제로 읽기도 하고,<sup>44)</sup> 공적 차원에서의 계몽주의와 사적 차원에서의 부르주아적 생활세계로 분열되어 있는 것으로 읽기도 한다.<sup>45)</sup> 그러나 신소설에서 서구적 근대를 수용한 측면은 생활형식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모순은 해결된다.

조선의 개혁, 계몽이라는 관념적 구호를 앞세우지만 계몽의 내용이 곧 서구적 일상인 것이다. 이때 일상이란 복장, 머리 스타일, 취향, 생활 방식 등 외적인 형태로 일종의 기호로 굳어진 것들이다. 관념, 규범, 물질, 언어로 구성되는 문화가 기호화되었다는 것은 관념과 규범이 물질이나 언어 표상으로 제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호는 사회의 제도, 관습, 행위, 감각, 욕망을 내포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찬식과 그 시기 대중들에게 계몽이라는 관념은 아직 내면화되지 못했다. 따라서 전통과 큰 괴리를

42) 최기숙, 앞의 책, p.91.

43) R. Jackson, 앞의 책, p.43.

44) 임선애, 「<추월색>과 한국적 근대의 이질성」, 『현대소설연구』 32, 2007.

45) 최원식, 앞의 논문.

가진 새로운 문화를 긍정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를 긍정하기 위한 판단의 기준점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그 판단의 기준점을 외부의 잣대로 삼는 것은 아직 근대적 관념이 내면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새로움을 설득하기 위한 근거를 역설적으로 과거의 증거, 즉 익숙한 기준점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낯선 새로운 문화에 대한 공포와 선망의 양가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독자에게 근대적인 생활형식을 받아들이면서 전통적인 가치를 굳건히 지켜가는 인물을 그림으로써 새로운 문화를 긍정하게 하는 것이다. 내부를 타자화하다가 조선의 문화를 중심으로 새로움을 재배치하고자 하는 것이다.

#### 4. 결론

이 연구는 최찬식의 소설에 나타난 이국취향을 중심으로 근대 계몽기를 살아가는 일상인의 의식과 그 발현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의 실체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이는 근대성이 각각의 사회 공동체의 관습에 따라서 다르게 경험되는 특정한 문화 형식이라는 점에 따른 것이다.

최찬식의 소설에서 반복해서 채용하는 이국행과 이국취향은 환상적 경험으로, 인식 불가능한 근대상을 상상적으로 재현함으로써 계몽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표상이다. 따라서 계몽의 관념보다는 실제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습속, 물질, 언어가 집중적으로 취재되며, 이러한 문화적 요소들이 일종의 기호화되어 계몽을 표상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이국적 일상을 내면화하고 있는 외부 세계가 중심화하고 그러한 요소들을 내면화하지 못한 조선 내부는 타자화된다. 내부를 타자화함으로써 필연적으로 귀결되는 자기의식의 혼란이 소설에서는 희생양이자 이방인인 광기의 여학생으로 표상된다. 계몽의 주체로 자신을 정립하고자 하나 실제 조선 현실

에서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당시 이질적인 존재인 ‘여학생’에게 투영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 윤리 기준을 잣대로 하여 그 기준에 도달한 여학생은 광기를 경험한 후 남성의 인정에 따라 여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몰각하고 이상적 여성상으로 자리잡으며,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여학생은 악녀로 처리되어 철저하게 배제된다. 조선의 감추어진 타자성, 즉 분열할 수밖에 없는 조선의 정체성이 ‘광기’로 표상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 의식의 혼란을 극복하는 서사적 전략으로 세계를 위계화하기 위한 하향식 이국취향을 주조하고, 전통 윤리를 재소환하여 이처(二妻)를 합리화함으로써 정체성의 분열을 봉합한다.

이렇게 내부의 타자화 작업과 문명과 야만 구도의 재배치를 통한 주체화의 작업이 동시에 진행됨으로써 서사는 균형을 잃고, 인간의 해방, 자아의 각성이라는 ‘계몽’의 관념보다는 생활형식의 근대화, 서구화가 더욱 강조된다. 전반부에는 새로운 인간형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다가 이 인물의 긍정성을 설득하기 위해 절개, 효 등의 전통적인 윤리를 인물에게 부여함으로써 전반부와 후반부의 서사적 긴밀성은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계몽주의와 생활세계의 분열이 아니라 생활이 곧 계몽이 되는 것이다. 이는 전통과 근대의 전환기에 근대적인 관념과 생활형식을 내면화하지 못한 대중들의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서, 최찬식의 소설은 대중성은 획득했으나 더 이상 새로움을 주는 장르로서의 ‘소설’이 되지 못하고, 일정 기간에 시대적 의의를 발휘하고 사라지는 역사적 장르로서의 ‘신소설’로 존재하게 된다.

## 참고문헌

- 최찬식, 『추월색』, 회동서관, 1912.
- 최찬식, 『안의성』, 박문서관, 1914.
- 최찬식, 『능라도』, 유일서관, 1919.
- 권보드래, 「열정의 공공성과 개인성」, 『한국학보』 26, 2000, pp.108-128.
- 권보드래, 「신소설의 여성성과 광기의 수사학」, 『한국문학연구』 4호, 2003, pp.289-308.
- 김현경, 「근대교육의 확산과 유학의 제도화」, 『사회와 역사』 70, 2006, pp.3-31.
- 나병철, 『탈식민주의와 근대문학』, 문예출판사, 2004, pp.1-389.
- 소영현, 「정열의 근대적 재배치」, 『현대소설연구』 24, 2004, pp.159-186.
- 임선애, 「<추월색>과 한국적 근대의 이질성」, 『현대소설연구』 32, 2007, pp.9-25.
- 차배근, 『개화기 일본유학생들의 언론출판 활동 연구』 1,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pp.1-964.
- 최기숙, 『환상』, 연세대학교출판부, 2003, pp.1-185.
- 최기숙, 「출구 없는 여성, 여성적 시간의 식민화」,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9, 2004, pp.311-341.
- 최원식, 「1910년대 친일문학과 근대성」, 『민족문학사연구』 14, 1999, pp.172-263.
- 하동호, 「개화기소설의 서지적 정리 및 조사」, 『동양학』 7, 1977, pp.1-50.
- 한기형, 「1910년대 최찬식의 행적과 친일논리」, 『현대소설연구』 14, 2001, pp.157-170.
- 한기형, 『한국 근대소설사의 시각』, 소명출판, 소명출판, 1999, pp.1-370.
- Bhabha, Homi. 『문화의 위치』, 나병철 역, 문예출판사, 소명, 2002, pp.1-488.
- Harootunian, H. 『역사의 요동-근대성, 문화, 일상생활』, 윤영실·서정은 역, 휴머니스트, 2006, pp.1-357.
- Hume, K. 『환상과 미메시스』, 한창엽 역, 도서출판 푸른나무, 2000, pp.1-336.
- Jackson, R. 『환상성-전복의 문학』,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역, 문학동네, 2001, pp.1-272.
- Kearney, R. 『이방인, 신, 괴물』, 이지영 역, 개마고원, 2004, pp.1-515.
- Schmid, A. 『제국 사이의 한국 1895-1919』, 정여울 역, 휴머니스트, 2007, pp.1-756.
- 湯本豪一, 『일본 근대의 풍경』, 연구공간 수유+너머 '동아시아 근대 세미나팀' 역, 그린비, 2004, pp.1-646.

ABSTRACT

Dispositif of culture by Exoticism in the Enlightenment Era of Korea-  
on the Case of Choi, Chan-Sik's fictions

Kwag, Seung-Mi

This study has aimed at examining closely the cultural identity of people who lived in the modern period of enlightenment, on the case of the *New Novel* by Choi, Chan-Sik. The moving abroad and foreign taste which be applied repeatedly in his novel is the representation to show civilization and enlightenment visibly to readers who didn't know it, through imagination. Therefore, This get to be the motive that the outside of *Chosun* is the center and inside is the others on the contrary. The confusion of identity to be inevitably resulted from regarding a inside as a outside is represented as a mad girl student who is a outsider and a victim on his novel. The tragedy which makes top-down exoticism by grading the world for standard of civilization and rationalizes the polygamy(two-wives) by recalling the traditional morals, sew up the spilt of identity of *Chosun* peoples in that period.

**Key Words** Subject, Alterity, Fantasy, Culture-code, Exoticism, Tradition, Madness, Polygamy

논문투고일 : 2008. 3. 30

심사완료일 : 2008. 4. 20

게재확정일 : 2008. 5. 4